

1/12(화) 사사기 묵상 38

사사기 12:8-15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11번째인 사사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의 삶과 이들의 사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 입산과 같은 대사사들과 달리 이들의 행적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들이 사사로서 한 일도 대부분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고만 남아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들은 소사사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사사 입산

입산은 베들레헬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는 특이하게 그의 아들과 딸에 대한 기사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9절, “그가 아들 삼십 명과 딸 삼십 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삼십 명을 데려왔더라..”). 입산에게 총 육십명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 수많은 처첩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본문은 입산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 며느리들과 사위들을 모두 ‘밖에서 데려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밖’은 어디를 뜻하는 것일까요? ‘밖(하우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는 ‘바깥, 또는 외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일부 학자들은 사사 입산이 모든 자녀들의 배우자들을 이방 민족에게서 데려왔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입산의 자녀들이 이방 민족이 아니라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혼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입산이 그의 모든 자식들을 단 한 명도 예외없이 타 지파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는 다른 지파와의 정략적 유대 관계를 위해 자녀들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사 입산이 국가를 다스리는데 있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그는 짧은 기간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사 엘론

엘론은 입산의 뒤를 이은 사사가 되었습니다(11-12절,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으매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엘론에 대한 기록이 단 두 구절 뿐인 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십 년간 그 땅이 평화롭고 아무런 대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론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신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에게 특별한 사사로서의 기록이 없다는 것은 뭔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사사들을 계속 보내주셔서 백성을 위한 영적이고 정신적인 지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사 압돈

압돈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소사사로서 그에게도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에게 사십 명의 아들과 손자 삼십 명이 더 있었다고 말합니다(14절, “그에게 아들 사십 명과 손자 삼십 명이 있어 어린 나귀 칠십 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팔 년이라.”). 이들

자손들이 모두 어린 나귀 칠십 마리를 탔던 것을 특징적으로 기록합니다. 당시 배경 속에서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부의 상징으로서 이는 사사 압돈 집안의 ‘부와 권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외 사사 압돈도 사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국가와 백성들을 위해 한 업적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8년간 다스리면서 자신과 그의 가족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와 문화적 수준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들은 독재자들이 국가의 지도력을 세습하고 부와 권력을 독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목상한 세 명의 소사사들의 모습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고 타락한 상태였는지를 가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요구됩니다.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 그리고 감정 등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스왈드 챔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을 깊게 사랑하면 그 분을 향한 순종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순종이란 희생일 뿐입니다(1/11).” 오늘 목상한 세 명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한 동안 섬겼지만 그들 가정의 부와 권세 외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사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을 위한 섬김의 자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왕과 같은 부와 권력의 자리에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분의 은혜와 축복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사사들과 같이 책망 받는 인생이 아니라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칭찬 받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 오늘 목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목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국가를 위한 기도: 백신이 나왔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자들의 숫자가 심각합니다. 특히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들과 연구진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당회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무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중보하겠습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페루아마존에서 사역하시는 홍성진 선교사님과 가정의 건강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